

### 보성 우체부 퇴임 류상진씨 40년 사연 '밥은 묵고 가야제' 펴내



#1. 1977년 참깨꽃이 핀 어느 무더운 날, 보성군 보성읍 외장마을 김씨네 집 골목에 빨간자전거가 멈춰 섰다. '따리, 따리' 자전거 벨이 울리자 김씨네 막내 딸이 대문 밖으로 뛰어나왔다. 일반 전보는 200원이었지만 300원을 더 얹어 보낸 특전전보였다. 전보에는 '득남'이란 두 글자가 써져 있었고 딸은 어머니, 아버지가 일하는 집 앞 밖으로 달려가며 "오빠네 아들 낳았대요"라며 소리쳤다. 이 외침에 인근 주민들도 집 밖으로 나와 때아닌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 “우편물 쌓이는 시골집은 슬프다”

#2. 1980년 노동면 장자골 외딴집 마당에서 군사우편을 손에 든 우체부는 한 잠을 입을 열지 못했다. 글을 모르는 주인네 부부가 대신 읽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우체부는 편지 내용을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생때같은 이 집 둘째 아들의 전사통지서였다. 우체부가 한참만에 입을 열자 부부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되돌아 오는 길에 우체부는 "얼마 전 이 집 큰아들도 교통사고로 먼저 죽었다"는 주민의 말을 들었다. 이후 부부는 고향을 떠났지만 우체부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폐허가 된 집집을 한 참 동안 바라보곤 했다.



보성군 일대에서 우체부를 하며 만난 시골 노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고 있는 류상진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우체국 앞 우체통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득남 전보에 잔치, 전사 편지에 울음바다” 500여 할머니·할아버지 사연 잔잔한 감동 뽕튀기 기계 사서 노인들 이야기 모집 중

지난 40여 년간 보성군 일대를 누비며 소식을 전해준 우체부 류상진(61·보성읍 보성리)씨의 기억 속 풍경이다. 지난달 정년 퇴임한 류씨는 우편을 배달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있다. 최근 그는 이 글을 모은 책 '밥은 묵고 가야제'(봄날의 책)를 펴냈다.

그가 본격적으로 글을 쓴 것은 10여 년 전이다. 인터넷 블로그에 집배원을 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 지난 2004년 '행복을 나르는 집배원'이란 책을 내게 됐다.

그가 만나 기록을 남긴 사람은 500여명. 저마다의 사연은 한 편의 영화처럼 잔잔한 감동을 준다.

처음 우체부를 시작했을 때, 그의 방문은 마을의 기쁨이었다. 아들을 군에 보낸 집은 그의 빨간자전거가 나타나면 돌담 위로 고개부터 내밀었다. 자전거가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서면 꿈에 그리던 임이라도 만난 듯 달려와 그의 손부터 잡았다. 그렇게 그는 지난 40년 동안 하루 80km 이상을 돌며 사람을 만났다.

세월이 흘러 전화기 보급이 늘어나면서 편지보다는 택배가 더욱 많아졌다. 우편자전거가 사라진 것도 15년 전이다. 무거운 택배가 많아 일은 더욱 고됐지만 여전히 그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택배를 보낸 사람은 대부분 그 집의 딸들이다. "딸들은 옷이나 밑반찬 등을 보내고 택배를 받은 노인들은 자식 자랑부터 해요. '서울에서 잘 산다'고 자랑을 하지만 택배 내용물을 보면 보낸 사람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어요"

계절이 변하면 부모의 옷가지부터 걱정하는 것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딸들이었다.

우편물이 쌓이는 시골집은 슬프다. 주인이 아프거나 그만, 이 세상을 떠난 경우다. 빈집에 수북이 쌓인 우편물은 한 번씩 다녀가는 자식들이 치운다. 떠나보낸 사람을 막막하게 그리워하듯, 빈집의 우편물은 쌓였다가 다시 사라진다. 요양원이 생겨 빈집도 더 늘었다. 대문 앞에 우편물이 쌓이는 집이 느는 걸 지켜보는 것 또한 시골

우체부가 겪어야 하는 남모름 아픔이다. 떠난 사람의 이야기는 시골 우체부를 만나 문장으로 남았다. 퇴임 후 그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또 뽕튀기 기계도 배우고 있다. 뽕튀기를 대접하며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노인들의 말 한마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소중한 삶의 의미 같았어요. 그렇게 한 줄 한 줄 글을 쓰다 보니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됐어요."

한편 '밥은 묵고 가야제'에는 그가 40여 년 동안 집배원 생활을 하면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연과 이들과 함께 보낸 잔잔한 일상이 담겨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보성=김은백기자 kyb@



## 사진작가 배병우씨 순천에 등기

### 시민장작 예술촌 1호 입촌...순천시와 문화명소 조성 협약

순천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민장작 예술촌'에 대한민국 대표 사진작가 배병우(사진)씨가 제1호로 입촌한다.

순천시는 22일 서울에서 배병우 작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시민장작 예술촌'을 예술가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순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어 순천만, 순천만 정원 등과 함께 순천의 대표 관광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장작 예술촌'은 순천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선정돼 구도심인 향동·중앙동 일원의 빈집을 사들여 예술촌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배 작가는 '순천'을 주제로 한 화보집 발간 계획과 함께 '배병우 프렌드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와 친분 있는 각계 명사들을 초청해 시민, 여행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작업실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공개하는 등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배 작가는 이날 "순천만과 도심에 연계해 사진 작업을 할 것이며, 사진과 문화예술의 향기가 피어나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외국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순천을 전 세계에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기자 eikim@

### '바림' 레지던시 '공시상영' 참가

### 13개팀 내일 광주극장서 작품 상영

문화단체 '바림'이 24일 오후 7시20분 광주극장에서 상영회 '공시상영'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림 단기 레지던시 프로젝트 '공시상영' 참가자들이 극장 상영용으로 제작한 영상들이 상영된다.

또 다음날인 25일 오후 7시부터는 동구 대의동 바림에서 '공시상영'의 에필로그 격인 오픈 스튜디오 행사가 진행된다.

'공시상영'은 2주 동안 45만원의 비용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공모를 통해 작가, 다큐멘터리 감독, 극영화 감독, 팟캐스트 제작자 등 13개 팀이 선정돼 '극장에서 상영 가능한 영상'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강상우·신연경씨는 80년 광주에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갑자기 사라져 종편으로부터 '북한군'이라고 지목 받는 '김군'을 추적하는 장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광주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 노은지씨는 10년만에 광



윤상정·신부연 '노고단'

주를 찾아 자신의 확장시절을 회고한다. 작가 차승아·이혜정씨는 광주에 대한 호기심을, 남정현·최보련씨는 광주비엔날레를 보면서 받았던 광주에 대한 인상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윤상정·신부연, 강민기, 김화라, 송원재, 허지은·이경호, 재일교포 3세 현우민, 나가모토 히로후미 씨들이 이번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문의 062-228-9876. /김경인기자 kki@

## 달콤한 배 안의 시큼한 레몬...본질은?

### 황정후 작가 개인전...中 798예술구

'본질.' 달콤한 배론 인줄 알았는데 알맹이는 자몽이다. 달짝 지근한 배 안에는 시큼한 레몬이 담겨 있다. 붉은 용과 속에는 노란 오렌지가 자리하고 있다.

황정후 작가의 이런 작품들은 겉모습이 아닌 이면에 숨겨진 것들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것들이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베이징장 작스튜디오에서 머물고 있는 황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중국 798예술구 3818쿠원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 주제는 'Fruit&(水果·과일)'이다. 그는 두 종류의 과일이나 채소를 접목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카메라에 담는다.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양면성이다. 과일의 껍질 속에 다른 과일의 속살이 담긴 것처럼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특히 황 작가는 이번 전시에 중국에서 작업한 신작들을 선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느낌의 소반 위에 석탄영어



'Fruit'

리를 올려놓거나 연어 통조림 등을 올려놓는 행위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양면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작가는 "같은 대상이라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 작가는 프랑스 생페티엔느 국립미술학교 졸업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호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2년만의 **빅세일** 7월 25일까지

# 이태리가구 SALE

www.hong79.com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홍스케이스** 가구빌딩 SINCE 1990